

■ EU, 수퍼카(super-economical car) 개발 박차

- EU 집행위원회는 디젤 1 리터로 100 km를 주행할 수 있는 초경량 수퍼카를 개발하기 위해 45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
 - 승용차, 버스 그리고 트럭의 사용을 좀더 지속 가능하게 하고,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집행위원회 전략 중의 하나로 추진 중인 계획임
 - EU는 1999년에 2003년까지 휘발유 3 리터로 100 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며,
 - EU 자동차 생산 업체들은 새로 생산되는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을 자발적으로 1995년 186 gCO₂/km에서 2008년 140 gCO₂/km로 대폭 낮추기로 약속한 바 있음⁷⁾
 - Visteon社는 ZEV기준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플라스틱 연료 저장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함
 - 또한, 다임러크라이슬러社는 향후 수년 내에 자사 폐차의 95%를 회수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기술을 시험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메이커들의 환경친화 차량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기본 목표는 2004년까지 폭스바겐의 Lupo TDI를 기본 모델로 제작될 초경량 차량에 쓰일 대체 물질을 생산하는 것임
 - 초경량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차량의 무게를 40% 정도 줄일 것이며,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줄어들 것이고, 효율은 대폭 향상될 것임
 - 2004년 연료전지 차량의 상용화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연소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수년간 계속 판매될 것이므로 차량의 경량화는 배기 오염물질의 감축과 연료절약에 필수요소임
 - 또한 새로운 물질의 개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 수를 3분의 1수준으로 줄일 것임
- EU는 연비를 30% 정도 개선한 소형 엔진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음
 - 경량화로 인한 자동차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자동차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술 구현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려고 계획함

천정용(cildon@hanmir.com, 02-3669-4099)

7) 2000년 8월 3일, 에코브리프 14호, 'EU,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성공적 감축' 참조

8) Zero Emission Vehicle standards로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America's voluntary Low Emission Vehicle program보다 강력한 규제로서, 어떠한 배기가스도 배출되지 않아야 하며, 현재론 연료전지 기술로만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임